

꽃벙이에서 항혈전 치료제 찾아

(식용곤충)

농진청, '인돌 알칼로이드' 혈전 치유·혈행 개선 효과 규명

식용곤충인 꽃벙이(원점박이꽃무지 애벌레)에서 분리한 물질이 혈전 치유와 혈액 순환(혈행)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29일자로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된 꽃벙이를 소재로 한 항혈전 치료제 및 혈행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진청청은 Top6 융복합 프로젝트의 '곤충 이용 식품 및 의약품 소재 개발' 연구의 하나로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와 함께 꽃벙이에서 분리한 '인돌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이 혈전 치유와 혈행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동물실험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주요 실험결과를 보면 시험관(in vitro)에 '인돌 알칼로이드'를 처리한 결과, 혈액을 응고하는 인자의 활성을 70% 가량 억제하면서 혈전 생성량을 60%~70% 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또 '인돌 알칼로이드'는 혈액 응고를 일으키는 당단백질인 '피브리린'의 응집을 70% 저해하고, '혈소판'의 응집을 60% 가량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동맥 혈전증이 있는 동물(쥐)에게 '인돌 알칼로이드'를 투입한 결과, 혈전의 크기와 생성을 50%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폐 혈전증이 있는 동물(쥐) 실험에서는 혈액 응고 인자인 '플라젠'

과 혈관 수축 물질인 '에피네프린'에 의한 치사율을 70% 가량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농진청청은 이번 꽃벙이(원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혈전 치유 효능 물질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며, 이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JCM(M(Journal of Cellular and Molecular Medicine)에 논문이 게재 확정됐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신약 개발을 희망하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항혈전 및 심혈관 질환 치료제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29조 원, 국내는 6,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재용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서구화된 식습관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늘면서 2022년에는 시장규모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기존의 항혈전 치료제를 대체해 장기적 복용에도 부작용이 적고 치료적 효능이 높은 천연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식·의약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농진청청 김미애 농업연구사는 "꽃벙이가 식품공전에 등록돼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된 데 이어 이번 연구로 혈전 치유 효능까지 밝혀진 만큼 앞으로 꽃벙이가 일반 식품은 물론 건강기능성 식품과 의약품으로까지 활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임대주택 입주인 만족도 향상 매진”

고재찬 전개공 사장, 간담회사

전북개발공사는 18일 공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임대주택 위탁사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2017년은 입주인 만족도 제고에 매진하는 해를 임대아파트 관리의 정책방향으로 삼고 “가족이 사는 아파트라는 생각으로 입주인이 편안한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외부 용역기관에서 실시한 임대주택 입주인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2015년(68.5점)보다 10.6% 향상된 79.1%가 나오자 지난해 취임한 고재찬 사장의 입주인에 대한 가족과 같은 열정과 지속 상승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 분위기를 연초부터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안재용 기자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시설 및 환경개선, 가족사진 콘테스트, 취약계층 생수지원, 취약세대 시설점검 등과 함께 단지별 다양한 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이 국민임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과 문화의 달에는 보내 출신 유명 위인을 재조명하기 위한 입주인 자녀 독후감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입주인의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입주인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을 가족과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면서 “수많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위탁사의 고객만족 전문노하우를 적극 활용, 입주인이 평생 살고 싶은 편안한 아파트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중국노선 하계스케줄 오픈

이스타항공이 18일부터 중국노선 하계스케줄 예약을 오픈한다. 이번엔 오픈하는 중국노선은 청주-선양(심양), 옌지(연길), 하얼빈, 닝보(영파)로 총 4개 노선이며, 인천-지린(제남), 청주-푸둥(상하이), 다롄(대련), 제주-취안저우(진장) 등 나머지

노선은 추후 오픈 예정이다. 탑승기간은 3월 28일부터 10월 28일 까지로, 여름휴가 및 10월 황금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 항공권 구매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설 성수품 구입비용 소폭 내림세

전통시장 기준 25만3,000원 선... 전주대비 0.5% ↓

설 명절을 2주 정도 앞둔 1월 17일 기준, 올해 설 차례상 구입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5만3,000원 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7일 전국 19개 지역, 45개소의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 차례상 관련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25만3,000원, 대형유통업체 34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0.5%, 0.2% 하락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품목 수는 전통시장은 13개 품목(전체 품목대비 46%), 대형유통업체는 17개 품목(61%)으로 대체로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품목의 경우도 전통시장은 4% 이내, 대형유통업체는 7% 이내 소폭 상승률을 보였다.

품목별 동향을 보면 무, 배추, 부세는 가격이 하락한 반면, 사과는 일시적 수요 증가로 소폭 상승하고, 계란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가격이 상승했다.

전년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은 품목은 쇠고기, 배추, 무, 계란 등으로 조사됐으며, 쇠고기를 제외한 상승 품목의 가격비중(전통시장 1.8%, 대형유통 1.1%)이 낮아 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별로 구입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은 쇠고기, 배, 도라지, 부세 등이 대형마트에 비해 구매가 유리했으며, 쌀, 배추, 무, 계란, 사과 등은 대형마트가 가격이 저렴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영향에도 불구하고 쇠고기(한우갈비, 3kg)와 사과(5kg, 16과)는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이 증가한 잣(500g)과 이월 재고물량이 충분한 꽃감(1.5kg, 40개) 등 5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다.

선물세트 중 가격이 높은 쇠고기와 꿀에 대한 지속형 소포장 선물세트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서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구매가 집중되는 설전 2주간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평시

대비 공급물량을 평균적으로 1.4배 확대 공급 추진 중이다.

특히, 배추·무는 유통단계를 간소화해 주요 소매점 위주로 직공급 및 할인판매를 추진하고, 계란은 가정소비가 늘어나는 기간에 농협계통 비축물량, 민간수입물량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설맞이 직거래 장터나 특관장 및 전통시장을 이용해 우리 농업인들이 따듯 정성으로 키워낸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품목별 상세 정보 및 관련 자료는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전북조달청, 상반기 중 사업계획 60% 조기 집행

내수 견인 도모

전북조달청이 올 상반기에 조달사업 계획(1조2,430억원)의 60%를 조기 집행해 내수를 견인하기로 했다.

18일 전북조달청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중식 청장은 올해 공공조달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 확대를 주요 목표를 정했다. 전북조달청은 올 상반기에 조달사업 계획의 60%를 조기 집행해 내수 견인을 도모하고, 발주지원팀 편성을 통한 중앙 조달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적극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유망 신생 벤처기업(새싹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벤처나라 이용 활성화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 지원 및 기술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

이며,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성능인증·우수조달품취득 지원과 수출 지원 설명회를 통한 G-PASS기업 발굴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조달청은 기술등급 평가제를 확대 기술·품질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적용 기술등급 평가제를 오는 6월부터 기존 10억원에서 2.1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평가할 방침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전북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 기반의 사업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제3기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수강생을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은 특허법원,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개설해 중소기업 임원들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임원은 제품능기술과(210-6441)로 신청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한재현 한호 회장, 이웃돕기 성금 기탁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정유년 새해에도 줄을 잇고 있다. (주)한호 한재현 회장은 18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한재현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사회의 정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한호 한재현 회장은 18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한호 한재현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사회의 정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홍삼주

진안고원
JINAN GOWON